

행복을 고하는 재(집)

CO-HOUSING PROJECT

누군가는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는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매뚜기 신세를 면하기 위해,

누군가는 적은 비용으로 단독주택에서 살기 위해

코하우징을 선택한다.

하지만 이 선택의 가장 큰 본질은

‘함께 산다는 것’

—

여기, 나이도 취향도 성격도 제각각인

세 가족이 모여 한 채의 집을 지었다.

신혼부부와 고양이 두 마리가 함께 사는 다나네,

맞벌이 부부와 3살 아들이 사는 은기네,

코하우징을 이끈 부부와 두 아들이 사는 서인이네까지.

—

세 가족이 한 건물에서 동고동락하며

널리널리 행복을 알리는 집,

행고재(幸告齋)에서의 삶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들은 왜, 같이 살까?

몇 년 전부터 여럿이 모여 집을 짓고 공용공간을 통해 이웃끼리 삶의 일부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코하우징(Co-Housing)’ 이야기가 종종 들려온다. 각종 매체에서 꾸준히 다루고 있는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집)’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인똥 떠올리기로는 서로 부대끼며 사는 일이 결코 좋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피를 나눈 가족끼리도 서로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생판 남인 사람들이 한집에 살아봐야 끝이 좋을 리 없단 생각에서다. 그런데도 함께 사는 집을 짓고자 머리를 맞대는 이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획일적이고 개별화된 주거문화에서 벗어나 더불어 사는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문화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행고재(幸告齋)’를 기획하고 이끈 박준용 씨는 사실 처음에 듀플렉스 주택을 계획했었다. 아파트 생활에 지친 가족은 늘 마당 있는 집을 꿈꿔왔고, 서울 안에 적당한 땅이 있는지 수시로 인터넷을 뒤졌지만 비싼 땅값에 매번 마음을 접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67평 정도의 단독주택전용지가 평당 800만원에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덤실 살 수 있는 가격은 아니었지만, 평당 1,200만원을 웃도는 주변 시세에 비하면 훨씬 저렴했다. 구경이나 해보자는 생각으로 아내 장영 씨와 함께 길을 나섰다. 조용하고 깨끗한 분위기에 나지막한 산을 곁에 둔 땅을 만났다. 첫눈에 흠뻑 반해버린 두 사람은 덜컥 계약금부터 걸었다. 하지만 없는 돈이 당장 어디서 솟아날 리는 만무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땅콩집’이었다.

다행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이웃 중 함께 집을 짓자는 이가 있었고, 준용 씨는 본격적으로 집짓기를 계획했다. 하지만 재산권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집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달라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그래도 포기할쑈냐, 이제 그는 여럿이 함께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카페를 드나들며 뜻을 같이 할 사람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코하우징의 일원

이 될 사람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 오래전부터 활동해온 영화감상 커뮤니티에서 동참하는 친구들이 생긴 것이다. ‘언젠가 같이 모여 살자’는 이야기를 자주 하긴 했지만,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인 형편이 고만고만한 터라 이 일이 현실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은기를 낳고 육아휴직을 낸 뒤 복직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던 시점이었어요.”

맞벌이 부부에게 늘 고민거리인 육아 문제. 준용 씨가 코하우징을 제안했을 때, 중학교 수학 선생님인 김애현 씨와 직장인 고승범 씨 부부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가 생겼다. 하나는 신림동 친정집 근처에 전셋집을 얻어 아이를 맡기는 것, 다른 하나는 코하우징 주택에 살며 아내가 출근해 퇴근하기까지 가정주부인 영 씨가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었다. 고민 끝에 코하우징을 선택했지만, 결정하기까지 쉽지는 않았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아준 건 10년 가까이 쌓인 관계와 서로 어떤 갈등이 있어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으리란 믿음이었다.

“함께라는 말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정확하게 콕 집어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며 지내는 것보단 훨씬 즐거운 일이라고 확신해요.”

신혼부부 박준형·장다나 씨 역시 ‘우리가 같이 집 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적은 많았어도 막상 실제로 함께 살게 된 순간에는 여러 가지 결단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막연한 우려와 불안도 있었지만, 그래도 얻는 게 더 많을 것이라 기대했다고.

이렇게 행고재에는 박준용·장영 부부와 13살 서인이, 7살 이린이가 사는 ‘서인네’, 고승범·김애현 부부와 3살 은기가 사는 ‘은기네’, 박준형·장다나 부부와 고양이 두 마리가 사는 ‘다나네’ 총 세 가족이 알콩달콩 살게 됐다.



고은기(3)
뚜뚱이 좋아하는 남자아이

김애현(37)
중학교 수학 선생님

고승범(35)
이른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회사원



장영(46)
미술 전문 가정주부

박서인(13)
팀버튼을 좋아하는 듕직한 큰아들

박준용(46)
연극 전문 회사원 해외직구의 달인 다림질을 좋아하는 아빠

박이민(7)
장난감을 모두 꺼내놓은 걸 좋아하는 둘째



박준형(38)
영화라 전문 회사원 토라모텔 좋아하는 키덜트

장다나(36)
영화 전문 트레이너서 모든 관심이 예술 분야

꼬마이(?)

고다르(?)

CO - HOUSING

코하우징 건축의 현실을 말하다

작년 5월 처음 땅을 보고, 두 달 뒤 스무썬 건축사무소 홍진희 소장을 만났다. 콘셉트에 관한 길고 긴 논의가 이루어진 후 본격적인 설계가 들어간 건 9월, 착공은 10월 말이었다. 그리고 올해 5월 중순에 세 가족 모두 입주를 마쳤으니 그 지난한 과정이 그야말로 순식간이다.

서울 시내에서 비교적 싼값에 좋은 위치의 넓은 땅을 얻게 된 것, 합이 잘 맞는 세 가족이 뭉치게 된 것, 좋은 건축가와 시공자를 만난 것,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집을 얻은 것. 누군가는 이를 두고 '운이 좋았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어느 집짓기가 그렇고 여러 사람이 도모하는 일이 늘 그렇듯, 행고재도 결코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세 가족만 모여도 꿈이 현실이 된다

“행고재는 토지 구입비용, 공사비, 각종 부대비용까지 총망라해서 든 비용이 11억원이 채 안 돼요. 서울 30평형 초반대 아파트 전세금(평균 3억3천만~3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처럼 세 가구 이상 모여면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준용 씨가 덧붙이는 조건은 30대 중후반에 그만한 돈을 모으기는 어려울 테니, 최소 40대 초반 이상 되어야 할 거라는 것. 그런데 행고재는 은기네, 다나네가 모두 30대 중반이다. 이 두 세대가 2억6천만원씩 내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서인이네가 아파트 판 돈을 조금 더 보탤다. 그래도 모자란 돈은 공동대출을 받아 이자를 공동으로 부담한다. 서로 끌어주고 받쳐주며 조금씩 양보해서 코하우징을 이뤄낸 셈이다.

행고재의 코하우징 소통법

각 세대가 원하는 것을 한 채의 단독주택 안에 녹여내는 과정은 행고재 식구들에게도, 건축가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마치 풍선처럼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왔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양보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야만 했다. 똑같은 공간이 없을 정도로 집마다 원하는 것이 확실했던 행고재의 경우는 더더욱 그랬다.

일주일에 한 번 커뮤니티 모임이 끝난 후 회의가 이루어졌다. 서로 만나지 못하거나 즉각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 할 때는 모바일 앱 ‘밴드’를 활용했다. 논의할 사항들에 관해 누군가는 정리해야 했기 때문에 준용 씨가 코하우징 대표(이하 ‘코대’)를 맡아 이끌어가기로 했다. 코대는 성공적인 코하우징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다. 준용 씨는 회의를 주관하고 주요 이슈를 전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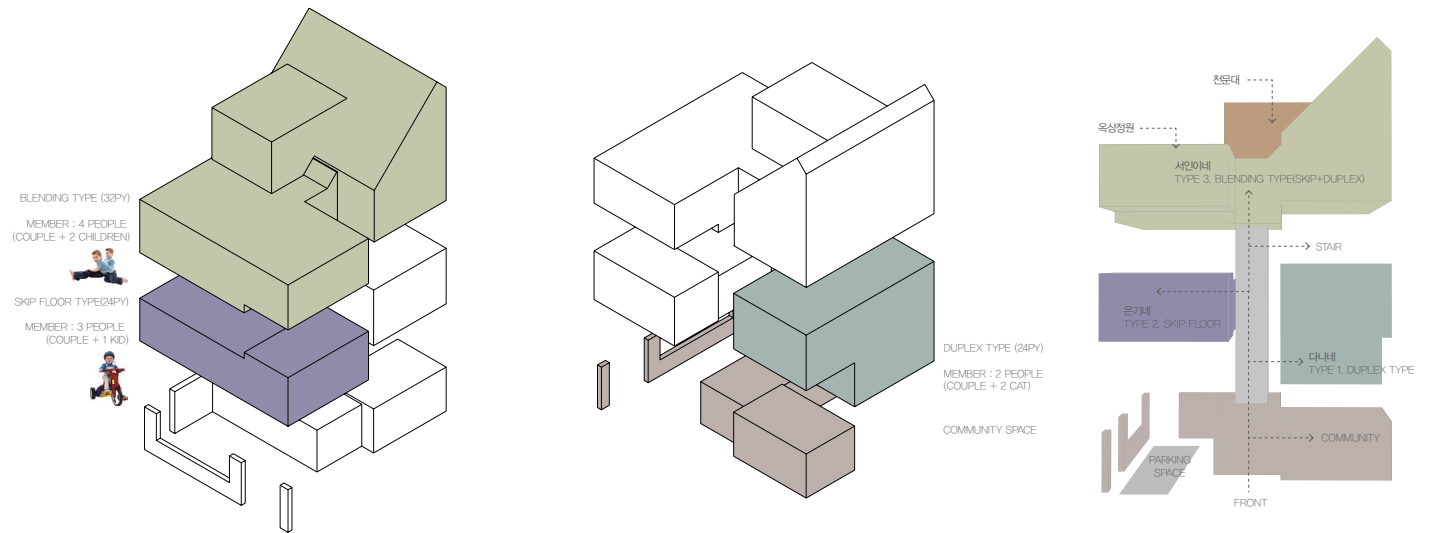
일은 물론, 가족들 의견을 듣고 정리해 건축가, 시공자 사이의 중재자 역할까지 도맡았다.

‘가까이 모여 사는 것’과 ‘한지붕 아래 사는 것’

사실 행고재는 ‘세 가구’가 아닌 ‘네 가구’로 시작했다. 공용공간 15평에 세대별 면적은 자금 상황에 따라 18평, 20평, 22평, 30평으로 나뉘었다. 문제는 각자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작다는 게 한 세대의 불만이었다. 함께 방법을 모색하고 각종 대안을 제시해도 쉽사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팽팽한 긴장 속에 그 부부는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내는 한 건물 안에 사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 모여 사는 정도만을 원했지만, 코하우징을 뜨겁게 갈망해왔던 남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맞춰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 친구가 소극적이었던 게, 코하우징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나 싶어요. 처음에는 함께 살자고 다같이 설득했는데, 나중엔 ‘아, 우리가 너무 성급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행복해지자고 하는 일인데, 억지로 끌려오지 않도록 먼저 제동을 걸어주는 게 오히려 배려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허심탄회한 대화 끝에 한 가족이 빠지기로 했고, 그 바람에 남은 공간이 생겼다. 그러나 집이라는 게 한 세대 줄었다고 해서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큰 위기일 수도 있었지만, 각자 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금을 끌어와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그 결과, 행고재는 공용공간 17평, 다나네와 은기네가 각각 24평, 서인이네가 32평을 쓰게 되는 구성으로 결정됐다.**



DIAGRAM

전셋집을 벗어나 다시 코하우징 세입자로

세 집이 하나의 집을 나눠 쓴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한 건 단연 '소유권' 문제다. 세대별로 비율에 따라 대지와 주택을 개별 소유, 등기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지만, 그에 대한 고민과 의견을 나누다 보니 또 다른 문제점들이 보였다. 대지와 건물 지분을 정확히 나누자니 해당 위치나 조건에 따라 가치가 조금씩 달라지는 등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았다. 모든 사항을 일일이 검토하고 분석하다가는 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이고, 제대로 집을 지어보기도 전에 진이 다 빠지겠다 싶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전세**다.

행고재는 준용 씨가 단독주택의 소유주가 되고, 나머지 두 집이 전세로 들어오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법적 절차들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 또한 주택 소유세대 외에 개별 세대가 임의로 집을 처분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소유세대가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우선 설정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도 리스크는 있다. 소유한 집을 처분하는 것보다 전세로 들어온 집을 나가는 게 더 쉽다는 것. 건물이라는 게 감가상각이 있기 마련인데 10년, 20년 후에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자칫 소유세대만 엄청난 빚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전세 세대가 주거지를 옮겨야겠다고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소유세대가 임의로 집을 처분해버릴 수도 있는 노릇이다. 물론 서로 믿고 시작한 일이지만, 전 재산을 내놓고 시작한 코하우징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족은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모든 내용은 '코하우징 참여세대 서약서'로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 후 공증까지 받았다. 이로써 법적으로는 전세의 형식이지만, 개념적으로는 각자 자기 집을 소유하는 형태의 코하우징이 탄생했다. 다른 다가구주택처럼 '건물주-세입자'의 상하관계가 아니라 사는 사람 모두가 동등한 관계인 집이다.

『행고재 참여세대 서약서』

- 전세금은 주택 건축 시 각 세대의 주거 규모와 구조에 따른 건축비와 이를 근거한 대지 비율 분을 합하여 산정한다. 이를 통해 각 세대는 내 집을 짓는 실질적인 비용을 감당하게 된다.
- 서인이네 3천만원, 은기네와 다나네 각 2천만원씩 출자금을 낸다. 이때, 전세세대는 주택 소유세대와 전세 계약서 작성 시, 출자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출자금은 전세세대가 사정상 집을 옮겨야 하거나 소유세대가 집을 매매해야 하는 상황일 때, 남아 있는 세대를 배려하여 놓고 나간다.
- 전세 계약 기간은 10년을 기본으로 하며, 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어 20년 이상 살 수 있다. 전세 기간 동안 보증금 인상은 없다.
- 소유세대가 주택을 매매하게 될 경우 전세세대에게 우선매수권을 준다. 전세세대가 우선 매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전세세대의 동의를 받아서 적당한 사람에게 매매할 수 있다. 이때 매매가 지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는다.
- 재산세 등 주택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세금은 비율에 따라 모든 세대가 나누어 부담한다.

최충우들 코하우징 집짓기

개인 생활도 없이 항상 공동체적인 삶을 강요하는 게 코하우징은 아니다. 함께 모여 살수록 사적인 공간은 더더욱 중요하다. 공동으로 누리는 공간이나 생활의 비중은 참여세대의 성향에 따라 합의하여 정하면 된다. 행고재는 함께 사는 것만큼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층별로 세대를 나누어 개별적 공간은 철저히 분리했다. 대신, 하나의 현관을 통해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코하우징 본연의 의미도 잊지 않았다. 세 가족은 공동 현관에 있는 게시판에 중요한 공지사항이나 간단한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고, 1층 커뮤니티 공간과 외부 카페 공간에서 모임을 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한 지붕 아래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삶이다.

행고재를 지으며 세 가족이 가장 크게 느낀 '벽'은 우리나라에선 아직 법적으로나 사회 인식적인 면에서 코하우징이라는 새로운 주거형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다가구주택은 여전히 임대 수익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고, 법적 규제도 이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한계가 코하우징에는 크고 작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공동현관에 신발장을 3개 놓겠다고 했을 때, 담당공무원은 각 세대의 현관과 신발장이 따로 하나씩 있어야 함을 역설했다. 1층 커뮤니티 공간을 두고 준공 후에 다른 세대를 들이기 위한 것이 아닌지 묻기도 했다. 공용공간의 전기와 가스보일러를 분리하겠다는 것에도 의심을 품어, 결국 보일러는 1층 다나네 집과 연결해야 했다. 외부 카페 공간의 화장실도 '나중에 공간을 막아서 임대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의심을 피해야 할 수 없었다. 아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열린 공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증거였다. 집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변화해가고 있음은 희망적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제 남은 건 함께 만들고 채워가는 것뿐

애현 씨가 출근하면 영 씨가 3살 은기를 봐주고, 주말에는 선생님인 애현 씨가 13살 서인이에 수학을 가르친다. 이린이와 은기는 매일 아침 어린이집에 갈 때마다 준형 삼촌, 다나 이모와 같이 놀고픈 마음에 '초인종 한 번만 눌러보면 안 되느냐고 묻는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이들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자유롭게 뛰노는데, 공용공간이 있어도 집 밖이나 다름없는 아파트에선 상상할 수 없던 삶이다.

승범 씨는 직업상 퇴근이 늦은 편인데, 밤중에 식구 중 누가 갑자기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는 게 참 힘이 된다고 말한다. 얼마 전 은기의 몸에 두드러기가 났을 땐 윗집 서인 이네가 달려와줬다. 아직 아이가 없는 준형·다나 씨 부부도 자신들을 잘 따르는 서인이, 이린이, 은기와 놀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이 모두가 행고재에 입주한 후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일상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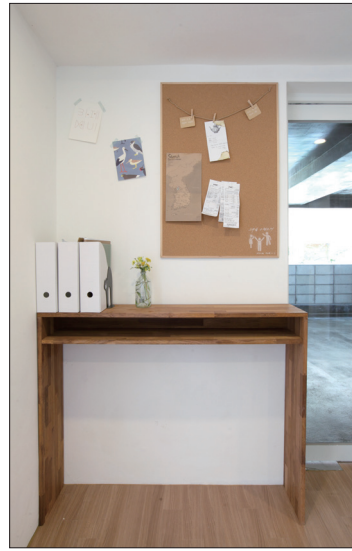
행고재에는 강제성을 띤 규칙이나 지침이 없다. 모임이 있어도 상황이나 시간이 허락하면 참여하고, 함께하고 싶은 모임이 생기면 제안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로, 살면서 갖춰가자는 주의다. 다만, 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대손충당금은 매월 5만원씩 내기로 했고, 공용공간의 청소는 구역별로 담당을 나눴다. 1층 내·외부 커뮤니티 공간의 청소는 그때그때 사용한 사람들이 한다.

1층 모임 공간은 행고재 가족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식구들과도 함께 사용하고, 응접실이나 손님방으로도 활용하려고 한다. 필로티 일부를 활용해 만든 카페 공간에는 스크린을 달아 동네 주민들과 함께 영화 감상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이 공간을 매개로 어떻게 소통하고 우리만의 코하우징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행고재의 행복한 고민은 끝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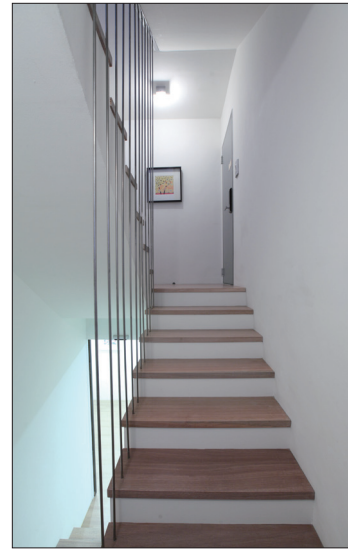


필로티 안쪽에 폴딩도어를 설치해 만든 카페 공간. 이곳에서 동네 주민들과도 영화감상 모임을 즐길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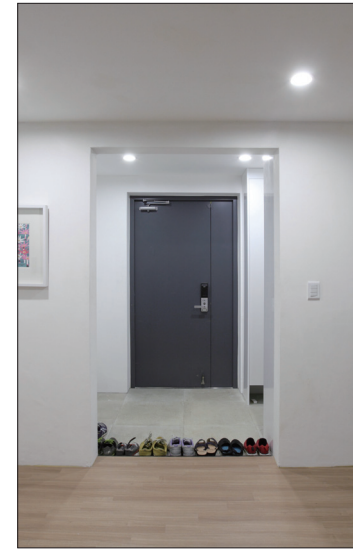
1층 함께 쓰는 공간들



1 라운지의 게시판에는 각종 메모나 공지사항, 영수증 등을 붙여 공유한다.



2 맨발로 오갈 수 있는 계단실. 자동문을 지나 오르면 각 세대의 독립된 현관문으로 연결된다.



3 공동 현관을 통해 신발을 벗고 각자 집으로 들어간다.



4 코하우징을 상징하는 모임 공간. 커뮤니티를 위한 것뿐 아니라 게스트룸, 응접실 등 모든 세대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1층 다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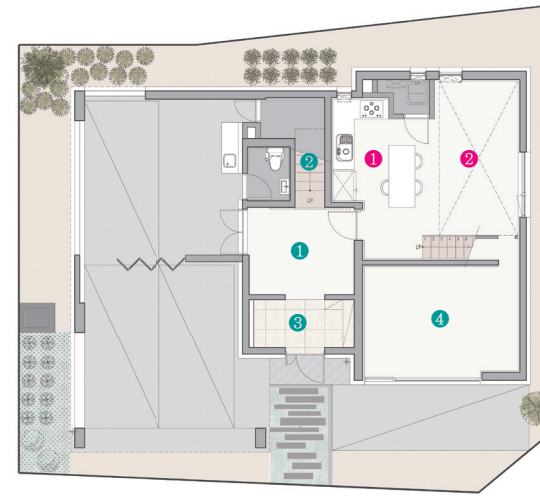
- We want
- 천장 높은 복층을 원해요
- 구조는 실험적이어도 OK!
- 글 쓰는 작업실은 꼭 필요해요
- 아기자기하게 꾸미기를 좋아해요
- 고양이를 위한 요소도 넣어주세요



1 '다'자형 주방은 거실과 바로 연결된다.



2 높은 천장을 위해 복층집을 원했던 다나네 거실



PLAN - 1F

House Plan

대지위치 서울시 강서구 수영로2길 | 대지면적 221,10㎡(66,88평) | 건물용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건물규모 지상 3층 | 건축면적 132,22㎡(39,99평) | 연면적 325,46㎡(98,45평) | 건폐율 59,80% | 용적률 121,63%(용적률용 연면적 268,93㎡) | 주차대수 4대 | 최고높이 14,65m | 공법 기초 - 철근콘크리트 매트기초, 지상 - 철근콘크리트, 경량목구조 | 구조재 철근콘크리트 | 지붕마감재 THK0,4 지정 컬러강판 | 단열재 비트랩 보온판(2종1호), T140 그라스울 보온판(40K) | 외벽마감재 (췌가이 Neolith(THK3 박판 세라믹), (췌테라코코리아 스테코, 세라이어(유림목재) | 창호재 (췌공간시스템창호 알루미늄 단열바 + 3중유리(35mm), 이지폴딩도어 | 설계 및 CM 스무숲 건축이야기 02-515-7106 www.smusoop.com | 시공 살림건축 | 총공사비 약 5억7천만원



❶ 집에서 글 쓰는 시간이 많은 준형·다나 씨 부부의 집에는 복층에 작업 공간이 각각 마련되어 있다.



❷ 다나네는 복층 침실을 지나 가장 깊숙한 곳에 비밀스러운 아지트 공간을 두었다.

2층 은기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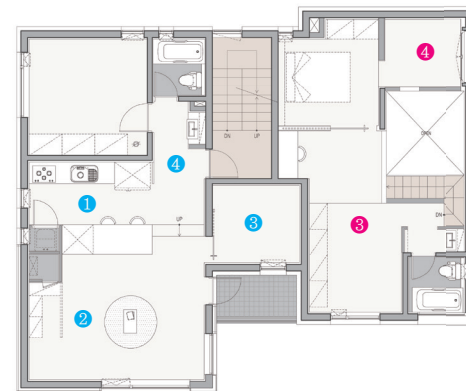
- We want
- 단순한 실 구성과 넓은 거실, 단층
 - 평소에 요리는 많이 안 해요
 - 아이와 함께 노는 공간 만들어 주세요
 - 안방에선 아이와 셋이 잡니다



❸ 아이가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널찍한 거실을 원했던 2층 은기네는 심플한 단층으로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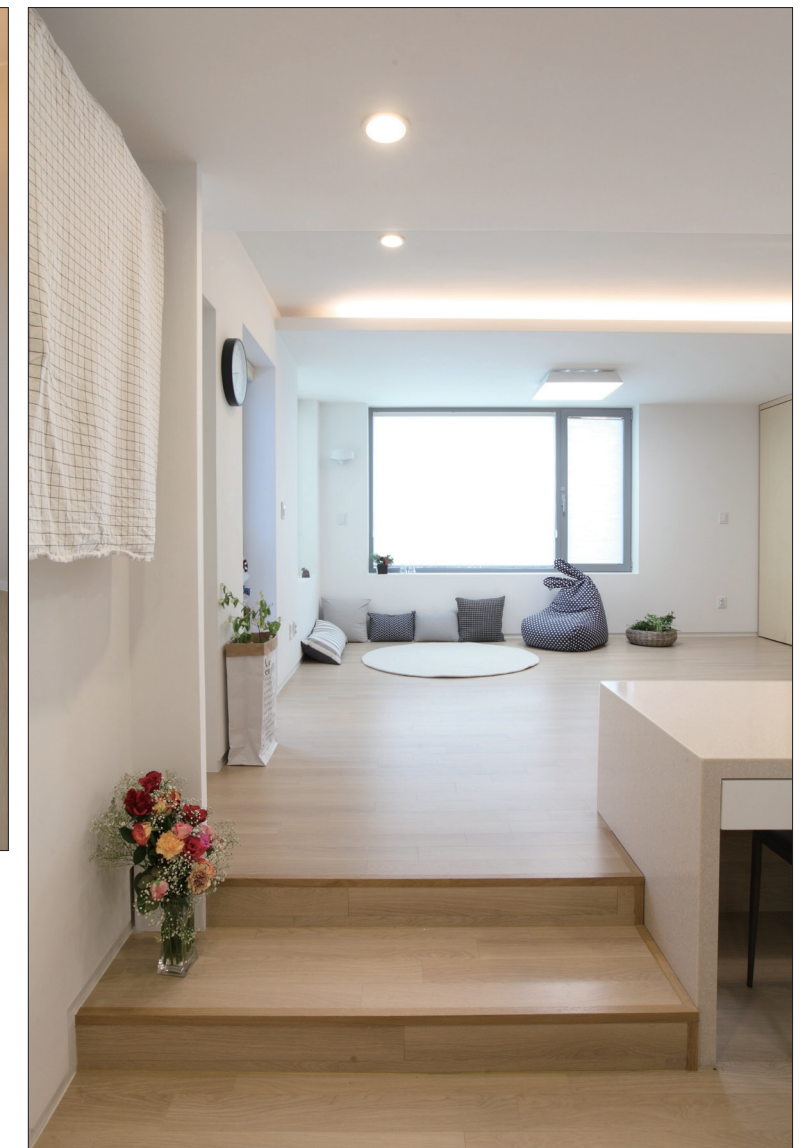
❹ 주방에는 거실과 맞닿아 있는 식탁을 두어 엄마가 집안일을 할 때도 아이와 소통할 수 있게 했다.



PLAN - 2F



❺ 은기를 위해 준비한 작은 놀이방



❻ 주방과 거실 경계에 단차를 주어 공간에 리듬감을 더했다.

Interior Source

내벽 마감재 친환경 수성페인트, LG Z:IN 벽지 | 바닥재 동화 자연마루 나투스강 | 욕실 및 주방 타일 (썬가이, 윤현상재 | 수전 등 욕실기 기 아메리칸스탠다드, 쿠세라, 대림, 해외직구 | 욕실 액세서리 바노테크, 두림위생도기, 아메리칸스탠다드, 주문 제작 | 주방 가구 (썬가이 (Neolith), 유나퍼니처 | 조명 현장 제작, 을지로 미립조명, 아트인루체, 비비나라이팅, 비츠조명, 라이팅인하우스, 모던라이팅, 해외직구 | 계 단재 THK30 라왕 | 현관문 동방노보폼(방풍 가스켓 방화문) | 방문 라왕문 화이트 도장 | 붙박이장 유나퍼니처, 현장제작 | 데크재 3층 데크 - 자라목, 옥상- 발라타(신홍목재)

3층 서린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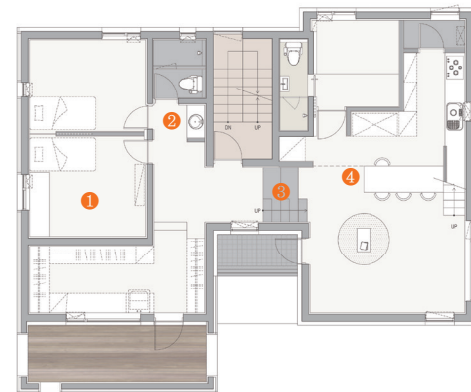
- We want
- 다락방이 꼭 있었으면 해요
 - 그림자가 예쁜 집, 자연 채광을 좋아해요!
 - 우리도 요리엔 취미가 없어요
 - 밤하늘 볼 수 있는 천문대를 만들어 주세요
 - 다림질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드레스룸
 -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이 좋아요
 - 아이들이 아빠와 영화볼 수 있는 공간



① 혼자 잠들기 무서워하는 둘째 이린이를 위해, 벽에 슬라이딩도어를 달아 서인리와 함께 지낼 수 있게 했다.

② 행고재의 모든 세대는 세면대를 욕실 외부에 두었다.

③ 거실로 오르는 계단은 맞은편 벽에 스크린을 설치해 영화를 보기 위한 것이다.



PLAN - 3F



④ 주방기구, 식탁에는 외장에 사용한 세라믹자재 '네오 리스(Neolith)'를 썼다. 내구성이 강해 내·외부 모두 사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다. 디자인이 돋보이는 조명, 소품들은 대부분 준용 씨가 해외직구로 구입한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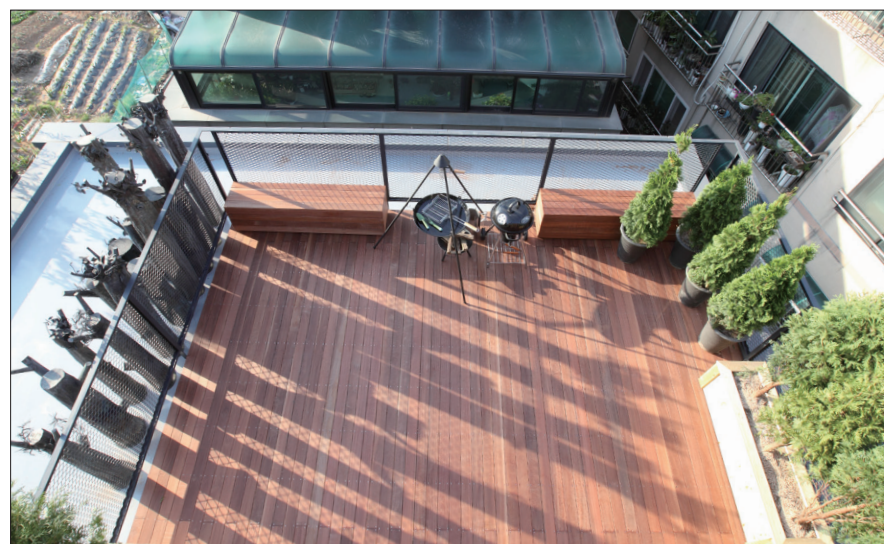


서인이네 다락방 + 옥상공간



1 아이들을 위한 천문대. 해먹을 설치해 낮에는 햇살을, 밤에는 별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2 서재로 꾸민 다락방. 행고재의 모든 아이들이 드나드며 책을 읽을 수 있게 할 생각이다.



3 다양도로 활용할 수 있는 옥상 테크 공간



PLAN - ATTIC

함께 살고 싶다면 이들처럼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느냐는 물음에 '누구는 언제 만났고, 이쪽은 몇 년이고...' 서로 만난 시점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한참 따져보고 난 후에야, 사람에 따라 몇 년씩 차이는 있지만 가장 오래된 사이는 10년도 넘는단다. 행복을 널리 알리는 집 '행고재'를 짓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누가 뭐래도 영화감상 커뮤니티에서 만나 오랫동안 알고 지내며 신뢰와 마음을 쌓아온 '관계의 진정성'이다. 그래도 이들에겐 이 여정이 서로 몰랐던 부분을 새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교류가 없던 사람들끼리 단순히 '코하우징'이라는 콘셉트가 좋아 만났을 때는 헤쳐 나가야 할 산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생활의 호흡을 맞춰볼 기회가 없었던 탓이다. 단순히 친한 상태에서 코하우징을 도모하기보다는, 이들처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충분히 뒷받침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살기를 원하는 이유다. 엄청 노력해서 배려해야 하는 일도 관계의 무게만큼 훨씬 수월해질 수 있으니 말이다.

"형 이야기를 들으니 고생했던 게 떠올라서 괜히 울컥하네요(웃음)."

코하우징 행고재를 지으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세 가족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악성 민원!!!'이라 외친다. 코하우징 건축을 진행하며 가장 걱정했던 건 내부적인 마찰과 잡음

이었는데, 오히려 그 외적인 문제들이 이들을 훨씬 더 지치고 괴롭게 한 셈이다. 세 가족은 이런 일들을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었을 거라며 지난날을 회상한다. 하나도 둘도 아닌 셋이라서 더 좋은 건,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투덜대기도 하고 위로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사실이다.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행고재에 살아보니 생각보다 좋은 점이 훨씬 더 많다. 아파트 평면과는 완전히 다른, 내가 꿈꿨던 집이라서 좋고, 2년마다 전세금 올려줄 걱정, 이사할 걱정 없이 휴가 분하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전세금이 얼마나 더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집 지은 비용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 같지는 않다.

"친인척이나 가족도 따로 살거나 집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거든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새 늘어버린 다음에야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가 많죠. 우리는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같은 집을 짓고 채워가면서 한지붕 아래 함께 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코하우징을 위해서는 '집'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야 한다. 집을 재산가치로 규정한 채 파지고 들면 끝이 없다. 누가 뭐래도 코하우징의 가치와 본질은 함께하는 삶,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살 곳을 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면, 내 가족과 이웃이 평생 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삶이 반영된 공간과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면, '제2의 행고재'를 꿈꿔보는 건 어떨까? ▲

